

빛장 풀린 '국립공원 케이블카' 찬반 논란

설악산 오색 허가... 덕유산 이후 26년만

구례군 "지리산 재추진"... 월출산도 검토

지난 1989년 덕유산 곤돌라 사업허가 이후 26년 만에 국립공원 케이블카의 빛장이 풀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가 들쭉이고 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강원도와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공역 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리산·월출산·무등산 국립공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28일 제 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안을 심의·조건부 의결했다.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수립 등 7가지를 부대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양양군 오색리~설악산 끝정(해발 1480m)을

연행하는 길이 3.5km의 케이블카 운행이 2018년부터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으로 '5중'으로 보호받던 설악산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 사업이 더욱 확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리산·월출산을 비롯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계기로 답보상태에 있던 관련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당장, 20년 이상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를 추진해온 구례군은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결정을 환영하며, 지역민과 함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례군은 지리산온천관광단지~지리산 노고단 인근 종석대 구간(3.1km)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990년 지리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반영된 후 20년 넘게 끌어왔다.

지리산의 경우 구례군뿐만 아니라 전북 남원, 경남의 산청, 함양 등 4개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환경부에 타진해왔으나, 환경부는 4개 지자체 중 1곳 내지는 영·호남에 각각 1개로 사업을 좁혀올 경우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검토했던 양양도 재추진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경우

지난 2012년에는 필요성이 적다는 환경부의 판단을 받은 바 있지만 영암군은 관광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추진 기회를 엿보는 데세다.

무등산 국립공원도 지산유원지와 무등산 정상 구간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를 광주시 동구가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다. 동구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문객에게 불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대다수 주민의 사업 동의와 함께 나후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 추진은 환경파괴 불가피"라는 이유로 한결같이 반대편을 표시하면서 맞서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구례=이성규기자 lsg@kwangju.co.kr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혐의

조직 운영 총책에 징역 6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구성원들에게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등)로 기소된 국내 관리자급 이모(28)씨에게 징역 6년, 책임자급인 원모(29)·문모(40)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32명에게도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검거되지 않은 총책의 지시를 받고 중국과 국내에 콜센터 조직을 구성한 점과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추고 범행에 가담, 또 제3자의 돈을 가로채는 공동 목적 아래 행동했으며, 조직 탈퇴가 자유롭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국내 피해자 300여 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겠다고 속이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이중 214명에게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계좌로 송금할 것을 유도해 13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빛고을 산들길'로 광주 한바퀴

광주시는 지난 29일 윤창현 광주시장과 시민 등 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 조성한 '빛고을 산들길' 걷기행사를 열었다. '빛고을 산들길'은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모두 통과, 광주의 도심 외곽을 두르고 있는 전국 유일의 둘레길로 총 81.5km, 6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각 구간별로 기점과 종점을 구분해 1구간씩 하루 10~16km씩 걸으면 총 6일이 소요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 가운데 희생자 88명의 유족과 생존자 12명에게 총 378억원의 배상금과 국비 유로 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해수부는 다음달 1일 오후 7시 안산시 상록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배상 취지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세월호 배·보상 신청 9월 마감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어업인 등의 배·보상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수수산부는 30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세월호 배·보상 지원단에 따르면 28일 현재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136명(44.7%)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31명(19.7%)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4
해질녘 19:02
출몰 20:00
몰림 07:27

선선한 아침공기
전남지역은 차차 흐려져 오후에 남해안부터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 5~20mm.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20/30	보성	차차흐려져비	17/28
목포	차차흐려져비	21/28	순천	차차흐려져비	20/29
여수	차차흐려져비	22/26	영광	맑음	18/30
나주	맑음	18/30	진도	차차흐려져비	19/28
완도	차차흐려져비	20/28	전주	맑음	19/29
구례	차차흐려져비	18/30	군산	맑음	19/30
강진	차차흐려져비	19/28	남원	차차흐려져비	19/29
해남	차차흐려져비	18/29	홍산도	맑음	21/26
장성	차차흐려져비	18/30			

◇바다 날씨

시해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북~북동	0.5	북서~북	0.5
	남부	북~북동	0.5~1.0	북서~북	0.5~1.0
남해	남해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서부	남~남동(동)	1.0~2.0	북~북동	1.0~2.0
	면바다(서)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3:08	15:23	08:21	20:24
여수	10:00		03:48	
	22:27		15:58	

◇주간 날씨

9/1(화)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	☁	☁	☁	☁	☁	☁
22/28	22/29	22/29	21/29	20/28	20/28	19/27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운동	10
빨래	20

영산강 녹조서 독성물질 검출

광주환경운동연합 "보 철거해 물 흐르게 해야"

영산강에서 발생한 녹조에서 독성 물질을 포함한 남조류가 검출됐다.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녹조 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승촌보·죽산보를 철거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28일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 나주시 영강동 영산교 및 영산강 중류지점에서 녹조 조사를 실시, 남조류의 한 종류이자 독성물질을 포함한 마이크로시스티스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이날 영산교 인근 콘크리트 축대에서 찾아낸 녹색 피로부터 시료를 채취해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시료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란 독성물질을 확인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남조류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에 함유된 독성 물질로, 섭취할 경우 간이나

소화기 계통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 설명이다.

환경단체들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문을 개방하거나 보를 철거해 강물을 흐르게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조사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4대 강 정밀 분석에 앞서 사전 조사 차원에서 진행됐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4대 강 사업으로 영산강에 보가 만들어지면 이후 물이 정체되면서 해마다 녹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녹조의 변성은 수생태계 악화의 요인이 되고 독성으로 인해 어류와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연제동 광명·새한 2차 특별분양

지금의 기회

탁월한 생활인프라 & 미래가치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사이에 위치한 새한아파트는 79㎡, 방 3개와 욕실 2개 480세대의 고객선호도 100%로 구성된 중상형 아파트로 주위 시세보다 저렴한 남향 로얄층 1억8천만원 선착순(공·호 지정분양)입니다.

양산초등학교가 바로 위치에 있으며, 대형 롯데마트 입점 예정이며 지하철 2호선 예정지입니다. 교통 또한 빛고을로, 북광주 IC, 입방출대로 등 접근성이 매우 좋고 이용도 편리합니다. 주위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개발의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리며, 시세보다 저렴하고 인기몰이 중상형 아파트로 내집 마련 절호의 기회입니다.

3.3㎡당 400만원대 특가분양

즉시 입주 대응 70% 가능, 선착순 공·호 지정

높은 수익률 임대사업자 환영

남·양산지구 중심생활권 우수한 명문학교

상무지구 10분

임대사업자 환영

계약즉시 2,000만원 시세 차익/방 3개, 화장실 2개, 고객선호도 100%만족

특별분양 문의 (062)574-0079

2015년 부동산 전망과 재테크 세미나

- 신 개발지 뜨는 지역 집중분석 -

99% 성공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부자아빠, 부자엄마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고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부자아빠, 부자엄마들을 다음과 같이 초대합니다.

코아 부동산 재테크 상담소에서 불황기 소액투자자도 가능한 실전 토지 투자법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강의내용

- 토지 시장의 현황과 전망
- 부동산 가격상승 핵심지역 분석
- 돈되는 부동산 투자법 공개(가장 미래가치가 있는 땅은 무엇인가?)
- 소액투자도 가능한 실전 토지 투자법
- 아파트의 향후 시장분석과 전망
- 남의 신도시 도청 2차 오피스타운의 분석과 전망
- 주목! 급변하고 있는 슬리시도의 미래가치 분석

일정과 장소

- 2015. 9. 1(화), 1부 오후 2시~4시, 2부 오후 7시~9시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683번지 J타워 3층 (첨단 2지구 북광주동협회와 광주은행 사이)
- 예약 문의: 062)576-7955

주관 코아토지 재테크상담소

※ 품과 열정으로 가족처럼 일하실 프랜차이즈 여직원 〇명을 모집합니다.

김영은 팀장 (1부)
박희락 대표 (2부)

코아토지 재테크상담소 감사 감사원 교육원 외래교수 전담자문위원장 외래교수

코아토지 재테크상담소 대표 (주)재테크상담 대표이사 토지 실전 전문가